

## 현주쌤의 손분석 2020 3월 학력평가 문법 11~15 [2]

13. <보기 1>을 바탕으로 <보기 2>의 ①~⑤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<보기 1>  
합성 명사의 구성 요소 중 선행 요소는 다양한 품사의 단 어이지만 후행 요소는 일반적으로 명사이다.

<보기 2>  
① 새해를 맞이하여 오랜만에 할머니 댁에 갔다. 할머니께서 점심으로 ② 짙은소금 위에 새우를 올려놓고 구워 주셨고, 저녁에는 ③ 산나물을 넣은 비빔밥을 해 주셨다. 내가 할머니께 스마트폰의 여러 기능을 알려 드리자 “④ 척척박사로구나.” 라며 ⑤ 어린아이처럼 좋아하셨다.

- ① ⑦은 관형사와 명사가 결합한 합성 명사이다.
- ② ①은 동사의 활용형과 명사가 결합한 합성 명사이다.
- ③ ④은 명사와 명사가 결합한 합성 명사이다.
- ④ ⑤은 부사와 명사가 결합한 합성 명사이다.
- ⑤ ⑥은 형용사의 활용형과 명사가 결합한 합성 명사이다.

⑦ 새|해      ① 짙은|소금

관형사+명사      형용사의 활용형+명사

⑤ 산|나물      ④ 척척|박사  
명사+명사      부사+명사

⑤ 어린|아이

형용사의 활용형+명사

[14~15]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**동사**  
**차이점↑**  
**형용사**  
**공통점**

현대 국어의 《시간 표현》 중 하나는 선어말 어미를 활용하는 것이다. 동사는 <어간에 선어말 어미 ‘-는/-ㄴ-’을 결합하여 현재 시제를 표현하는데, 동사의 어간 말음이 자음인 경우에는 ‘-는-’이, 모음인 경우에는 ‘-ㄴ-’이 결합한다. 이와 달리 형용사와 이다는 <어간에 선어말 어미가 결합하지 않고> 현재 시제를 표현할 수 있다. 동사와 형용사, 그리고 ‘이다’는 어간에 선어말 어미 ‘-았/-었-’을 결합하여 과거 시제를 표현하는데, (어간 ‘하-’ 다음)에는 선어말 어미 ‘-였-’을 결합하여 과거 시제를 표현한다. 동사와 형용사, 그리고 ‘이다’는 어간에 선어말 어미 ‘-겠-’을 결합하여 미래 시제를 표현하는데, 추측이나 의지 등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.

중세 국어의 시간 표현은 ① 용언의 어간에 선어말 어미를 결합하여 나타내는 경우와 ② 용언의 어간에 선어말 어미를 결합하지 않고 나타내는 경우가 있었다. 이를 살펴보면, 동사는 <어간에 선어말 어미 ‘-느-’를 결합하여 현재 시제를 표현하였고, 형용사는 <어간에 선어말 어미를 결합하지 않고> 현재 시제를 표현하였다. 또한 동사는 어간에 선어말 어미를 결합하지 않고 과거 시제를 표현하기도 했고, 회상의 의미가 있는 선어말 어미 ‘-더-’를 결합하여 과거 시제를 표현하기도 했다. 형용사도 <선어말 어미 ‘-더-’를 통해> 과거 시제를 표현하였다. 또한 동사와 형용사는 추측의 의미가 있는 선어말 어미 ‘-리-’를 어간에 결합하여 미래 시제를 표현하였다.

14. 윗글을 바탕으로 <보기>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<보기>  
○ 동생이 지금 밥을 ① 먹는다.  
○ 우리 아기가 무럭무럭 ② 자란다.  
○ 이곳에 따뜻한 난로가 ③ 놓였다.  
○ 신랑, 신부가 ④ 입장하겠습니다.  
○ 나는 어젯밤에 무서운 꿈을 ⑤ 꿨다.

- ① ①는 동사의 어간 다음에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로 ‘-는-’이 사용된 예에 해당한다.
- ② ②는 동사의 어간 다음에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로 ‘-ㄴ-’이 사용된 예에 해당한다.
- ③ ③는 동사의 어간 다음에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로 ‘-았-’이 사용된 예에 해당한다. **-있-**
- ④ ④는 동사의 어간 다음에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로 ‘-겠-’이 사용된 예에 해당한다.
- ⑤ ⑤는 동사의 어간 다음에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로 ‘-었-’이 사용된 예에 해당한다.

**-있-**

15. <보기>에서 ①과 ⑤에 해당하는 예를 찾아 바르게 짹지은 것은?

<보기>  
○ 너도 쪼 이 ① 丟掉다  
(너도 또 이와 같다.)  
○ 네 이제 쪼 ⑤ 丟掉다      **동사: 현재시제 선어말어미 ‘-느-’**  
(네가 이제 또 묻는다.)  
○ 五百 도즈기 … ② 丟掉 더니      **동사: 과거시제 선어말어미 ‘-더-’**  
(오백 도적이 … 도둑질하더니)  
○ 이 智慧 업슨 比丘 | 어드러셔 ④ 오뇨  
(이 지혜 없는 비구가 어디에서 왔느냐?)  
○ 이 善女人이 … 다시 나디 ⑤ 아니 허리니      **동사: 미래시제 선어말어미 ‘-리-’**  
(이 선여인이 … 다시 나지 아니할 것이니)

- |   | ①          | ② | ③ | ④ | ⑤          |
|---|------------|---|---|---|------------|
| ① | b), c)     |   |   |   | a), d), e) |
| ② | a), e)     |   |   |   | b), c), d) |
| ③ | d), e)     |   |   |   | a), b), c) |
| ④ | a), c), d) |   |   |   | b), e)     |
| ⑤ | b), c), e) |   |   |   | a), d)     |



## 현주쌤의 손분석 2020 3월 학력평가 문법 11~15 [1]

정답

- ① 첨가 ( $0 \rightarrow L$ ) 교체 ( $L \rightarrow ㄹ$  유음화)
- ② 교체 ( $ㄷ \rightarrow ㄸ$  된소리되기)
- ③ 탈락 ( $ㅂ\text{ㅅ} \rightarrow ㅂ$ ) 교체 ( $ㅂ \rightarrow ㅁ$  비음화)
- ④ 교체 ( $ㄱ \rightarrow ㆁ$  비음화)
- ⑤ 교체 ( $ㅎ \rightarrow ㄷ \rightarrow ㄴ$  음절끝소리, 비음화)
- ⑥ 탈락 ( $ㅎ$  탈락) 첨가 ( $ㄴ$  첨가)
- ⑦ 첨가 ( $ㄴ$  첨가)
- ⑧ 첨가 ( $ㄴ$  첨가)
- ⑨ 첨가 ( $ㄴ$  첨가)
- ⑩ 첨가 ( $ㄴ$  첨가)
- ⑪ 교체 ( $ㅏ \rightarrow ㄷ \rightarrow ㄴ$  음절끝소리, 비음화)

: 관형절

: 명사절

㉠ 늦은 : '친구들이' 주어 생략된 관형절

㉡ 풀기 : 주격조사 '가'와 산여 주어가 된 명사절

㉢ 주신 : '빵을' 목적어가 생략된 관형절

㉣ 사는 : '집에서' 부사어가 생략된 관형절

머무르기 : 목적격조사 '를'과 산여 목적어가 된 명사절

㉤ 도착했음 : 목적격조사 '을'과 산여 목적어가 된 명사절

11. <보기>의 학습 과제를 수행한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- <보기>
- 학습 내용: 음운 변동의 유형에는 교체, 탈락, 첨가, 축약이 있다. 음운 변동은 한 단어를 단독으로 발음하는 경우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. 둘 이상의 단어를 이어서 한 마디로 발음하는 경우에도 일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 '낮'과 '한때'를 각각 단독으로 발음하는 경우에 '낮[낟]'은 교체가 일어나고 '한때[한때]'는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. 그런데 '낮'과 '한때'를 이어서 한 마디로 발음하는 경우에는 교체와 축약이 일어나 '낮 한때[나탄때]'로 발음된다.
  - 학습 과제: 아래의 그과 뉴에서 두 단어를 이어서 한 마디로 발음하는 경우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의 유형을 찾고, 그 유형의 적절한 예를 제시하시오.
- 그. 잘 입다[잘<sup>립</sup>다] ① 첨가 ( $0 \rightarrow ㄴ$ ) 교체 ( $ㄴ \rightarrow ㄹ$  유음화) ② 교체 ( $ㄷ \rightarrow ㄸ$  경음화)
- 뉴. 깊 매기다[감매기다] ③ 탈락 ( $ㅂ\text{ㅅ} \rightarrow ㅂ$ ) 교체 ( $ㅂ \rightarrow ㅁ$  비음화)

공통적인 음운 변동의 유형

		예
①	교체	책 넣는다[챙 <sup>년</sup> 는다]
②	교체	좋은 약[조:은약] <sup>⑦</sup>
③	교체	잘한 일[잘한일] <sup>⑧</sup>
④	첨가	슬픈 얘기[슬픈 <sup>에</sup> 기] <sup>⑨</sup>
⑤	첨가	먼 옛날[먼언날] <sup>⑩</sup>

12. <보기>는 문법 수업의 일부이다. 선생님의 설명에 따라 ㉠~⑤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 [3점]

<보기>

선생님: 관형절은 안은문장에서 관형어로 쓰이는데 관형절에는 주어가 생략된 관형절, 목적어가 생략된 관형절, 부사어가 생략된 관형절 등이 있어요. 그리고 명사절은 안은문장에서 조사와 결합하여 주어, 목적어, 부사어 등으로 쓰일 수 있어요. 그럼 다음 문장에 대해 관형절과 명사절에 주목하여 분석해 볼까요?

- ㉠ 약속 시간에 늦은 친구들이 많았다. 명사
- ㉡ 마지막 문제를 풀기가 생각보다 어렵다. 주제조사
- ㉢ 나는 아버지께서 주신 빵을, 형과 함께 먹었다. (목적격조사)
- ㉣ 그는 지금 사는 집에서 계속 머무르기를 희망했다. 부사어
- ㉤ 그들은 우리가 어제 목적지에 도착했음을 이미 알았다. 목적격조사

① ㉠에는 주어가 생략된 관형절이 있고, 명사절은 없습니다.

② ㉡에는 관형절이 없고, 주어로 쓰인 명사절이 있습니다.

③ ㉢에는 목적어가 생략된 관형절이 있고, 명사절은 없습니다.

④ ㉣에는 부사어가 생략된 관형절이 있고, 부사어로 쓰인 명사절이 있습니다.

⑤ ㉤에는 관형절이 없고,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이 있습니다.

↳ 목적어

